

완주 · 전주, 함께 만드는 만경강의 기적

우범기 전주시장, 통합시 미래 발전 방향 담은 완주 · 전주 통합 비전 선포

전주시가 완주 · 전주 통합을 통해 누구나 다양한 기회와 행복을 누리고, 누구나 뿌리내리며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서 한강의 기적을 뛰어넘는 만경강의 기적을 이뤄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달 30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완주-전주 통합시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 소멸의 절박한 위기 앞에서 완전(完全)한 도시, 완전(完全)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완주 · 전주 통합의 역원이 날로 뜨겁고 깊어지고 있다”며 “완주와 전주가 하나된 힘으로 함께 미래를 그리고 함께 미래로 나아가면, 한강의 기적을 뛰어넘는 만경강의 기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완주-전주 통합시 비전은 통합 이후 완주 지역을 중심으로 통합시 미래 발전 방향을 담은 것으로, 오는 2040년까지 통합시를 △100만 광역도시 △AI산업 기반 경제산업 중심도시 △가장 살기 좋은 직주락(職住樂) 정주도시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040년까지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약 8.8조 원을 투자해 △통합시 5대 메가 프로젝트 △정주 혁신 7대 프로젝트 △K-문화 관광벨트 구축 △대한민국 최고의 첨단산업 허브 도약의 4대 전략, 2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시는 100만 광역도시의 기틀을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달 30일 ‘완주-전주 통합시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 · 전주 통합을 통해 만경강의 기적을 이뤄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마련하기 위해 △만경강 리버벨트 프로젝트 △통합시 행정복합타운 조성 △대단위 테마파크인 에코어드벤처랜드 조성 △통합시의 랜드마크가 될 삼례 하이파크 조성 △AI 기반 유통물류 허브 조성의 통합시 5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기로 했다.

시는 또 통합시 주민이 될 완주군민들의 생활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정주 혁신 7대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7대 프로젝트는 △‘완주-전주 30분 도시’ 실현을 위한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 △도시가스 · 상하수도 보급률 100% 달성 △500개 병상 이상 종합병원 유치 △완주 · 전주 상생 기본소득

추진 △4대 문화 · 복지 인프라 확충 △1인 1종목 생활체육도시 실현 △완주-전주 글로벌 K-캠퍼스 조성 등이 다.

이와 함께 시는 완주지역에 올림픽 선수촌 등 훈련장 등 기반시설을 조성해 올림픽 배후도시로의 역할을 강화하고, 문화예술클러스터 조성 및 여가 · 휴양 인프라 조성 등을 토대로 완주-전주 K-문화관광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끝으로 시는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 산업의 혁신을 가져올 ‘퍼지컬 AI 산업 생태계’를 통합시를 중심으로 만들어 가고, 전주의 탄소 · 드론산업과 완주의 수소 · 모빌리티 산업을 연계한

첨단 모빌리티 및 방위산업 등 첨단산업 기반도 내실 있게 구축하는 등 통합시를 대한민국 최고의 첨단산업 허브로 만들 계획이다. 산업단지가 인접한 봉동 지역에는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쇼핑과 문화, 주거, 오피스가 결합된 직주락 복합타워를 건립하는 등 청년 정주여건 개선에도 공을 들이기로 했다.

시는 통합 이후 완주군민들과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각 분야별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정부의 자율통합 인센티브와 국가 예산, 민자유치 등 재정적 기반을 적극 마련해 나가면서 새로운 미래 청사진을 함께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완주와 전주가 이 땅에서 함께 온 하나의 역사를 회복하고, 함께해 나갈 내일의 역사를 새로 쓴다면 미래 세대에는 더 넓고 다양한 기회의 터전을 활짝 열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당당한 대한민국 중심도시이자 세계 속의 광역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 완주 · 전주 통합의 길에 모두의 뜻을 모을 수 있기를 간곡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완주 · 전주 주민이 제안한 150개 완주 · 전주 상생발전 방안을 수용하고 이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명문화했으며, 이후 각 분야별 세부 상생 방안을 단계적으로 발표하고 전북특별자치도 · 완주군과 다양한 소통과 공론의 장을 마련해왔다.

/권희성 기자

전주동물원, 추석 연휴 정상 운영

전주동물원이 추석 연휴에도 시민과 귀성객이 가족과 함께 명절을 즐길 수 있도록 정상 운영된다.

전주시는 추석 연휴를 맞아 귀성객과 전주 시민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추석 당일을 포함해 연휴 4일간 휴무 없이 전주동물원을 정상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입장은 오후 6까지 가능하다.

특히 연휴를 맞아 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되고, 노약자와 영유아 동반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휠체어와 유모차 무료 대여 서비스도 제공된다.

시는 추석 연휴를 맞아 전주 시민과 함께 전주를 찾은 많은 귀성객과 관광객이 전주동물원을 찾을 것으로 보고, 동물사를 포함한 주변 관광로를 정비한 가운데 가을꽃을 식재하는 등 쾌적한 관람환경을 조성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함께미(米)소(笑)’ 동참

전주시 경제산업국,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 180만원 전달

전주시는 경제산업국 직원 50여 명이 전주시 노인복지관연합회(회장 최재훈)에 독거노인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10% 나눔 릴레이 캠페인인 ‘전주함께미(米)소(笑)’에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 18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에 동참한 경제산업국 직원들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담당하고 있으며, 새 정부의 신속한 지급계획 시달에도 차질 없이 1차 소비쿠폰 지급을 마무리한 데 이어 현재 2차 소비쿠폰 지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들은 바쁜 업무 일정 속에도 자발적으로 기부 취지에 동참해 릴레이에 동참하게 됐다.

이와 관련 민생소비쿠폰 10% 나눔 프로젝트인 ‘함께미(米)소(笑)’는 시와 전주시노인복지관연합회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활용해 소비쿠폰의 10%를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이 기부 릴레이를 통해 총 1억 원을 모금해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 1만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기부된 금액은 정주지역 7개 노인복지관에서 모금 접수된 기부금과 함께 전주지역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 1만 명에게 백미와 누룽지, 식료품 등의 꾸러미로 전달될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추석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우범기 전주시장, 모래내시장 찾아… 시, 부서별 행사 추진

전주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통해 민생 회복에 집중하고 나섰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30일 시청 직원 및 유관기관 직원 60여 명과 함께 모래내시장을 찾아 추석 명절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

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지난 29일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 각 부서별로 전주지역 전통시장을 찾는 장보기 행사를 추진 중이다.

이날 우 시장은 시장 상인들과 덕담을 나누며 민생 현장을 살피고,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 제수용품과 먹거

리 등을 구매했다.

또한 참여자들은 전통시장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감바나눔을 나눠주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시는 이번 행사가 2차 소비쿠폰 발급과 함께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명절 대목을 앞두고 전통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전통시장과 민생경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의회, 추석 맞아 위문품 전달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가 추석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위문품을 전달했다.

지난달 30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과 김원주 운영위원장, 박선전 의원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진북동주민센터를 찾아 백미(10kg) 28포를 전달하고, 각종 민원에 대한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남 의장은 “민족 대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이웃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이지만 명절을 맞아 주위를 둘러보는 아름다운 지역사회가 되



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